**별을 향한 광기**

**붉은 행성의 꿈**

무대는 숨 막힐 듯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돔형 천장은 별이 박힌 밤하늘을 형상화했고, 중앙의 원형 무대 위에는 단 한 사람, 이카루스가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지름 50미터에 달하는 곡면 스크린이 이글거리는 화성의 붉은 표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모래 폭풍이 휩쓸고 간 거대한 협곡과 바싹 마른 호수 바닥의 흔적들이 그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했다.

이카루스는 마이크를 든 채 덤덤한 표정이었다. 무려 5만 명의 군중이 그를 보기 위해 모였지만, 그의 시선은 그들을 넘어선, 저 스크린 속의 붉은 행성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그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공중에 떠오르자, 스크린 속 풍경이 바뀌었다. 이제 화면에는 그의 회사가 설계한 거대한 우주선 ‘아레스(Ares)’가 굉음을 내며 불꽃을 뿜어내는 CG 영상이 펼쳐졌다.

“인류는 다시 한번 항해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별의 바다를 건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하게 떨리는 전율이 있었다. 그는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하는 과정을 묘사했다. 화성 대기권 진입 시의 마찰열, 낙하산이 펼쳐지는 순간, 그리고 드디어 착륙선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착지하는 장면까지. 5만 명의 군중은 숨죽이며 그 장엄한 서사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금 이카루스가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구세주라고 믿었다.

하지만 무대 위 이카루스의 눈빛은 그들의 환호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의 동공은 확장되어 있었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쪽 눈은 스크린의 불꽃을 향해 타오르는 듯 보였지만, 다른 한쪽 눈은 무대 아래 어두운 그림자에 갇힌 듯 공허했다. 마치 그의 영혼이 몽상과 중독이라는 두 개의 행성 사이를 불안하게 표류하는 것처럼. 그의 셔츠 아래로 드러난 손등에는 날카로운 바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의 입술은 건조하게 바싹 말라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돔을 뒤흔들었다. 이카루스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많은 기자와 경호원들이 그를 에워쌌고, 비서 ‘헬레나’가 그의 옆에 바싹 다가섰다. 헬레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보다 더 깊은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카루스는 헬레나의 귀에 입술을 가져가며 작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대 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늘… 케타민, 잊지 마. 앰버 시럽(amber syrup)으로 부탁해. 꿈을 꾸게 해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카루스는 기자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의 웃음은 완벽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붉은 행성을 향한 광기와 현실을 잊으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금, 인류의 미래를 논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좁은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케타민은 그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선사하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밤의 제왕**

밤의 장막이 거대한 도시를 덮자, 이카루스의 펜트하우스는 섬광처럼 빛났다. 100층 높이의 통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땅에 떨어진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10억 달러짜리 야경은 그에게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그는 그 빛들이 모두 자신을 향한 감시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넓은 거실의 한쪽 구석, 벽난로의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곳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에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지금 'X-포럼'이라는 플랫폼을 열고 있었다. 2000년대의 트위터에서 진화한, 인류의 집단 지성이 파편화되어 떠도는 디지털의 바벨탑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내면을 폭로하듯, 의미심장하면서도 기괴한 밈 하나를 올렸다.

“인류는 사실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우주 시뮬레이션 속 NPC다. 0과 1 사이를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은 언제쯤 깨어날까?”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의 기술 총괄이 제출한 보고서를 찢어버리며, 그 위에 이렇게 덧붙였다.

“보고서가 너무 길어. 요약하자면, 아직 우리 기술은 운전면허 딴지 3일 된 10대보다 못하다는 뜻인가? 내일 해고될 자는 해고될 것이다.”

그의 트윗은 거대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댓글 창은 순식간에 열광과 조롱으로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혁신의 선지자라고 찬양했고, 누군가는 그를 정신 나간 부랑아라고 비난했다. 이카루스는 그 혼란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었다.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그는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다.

같은 시간, 도시의 다른 한쪽,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 17살의 소녀 세라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온통 이카루스의 포스터와 기사 스크랩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녀는 학교를 다니는 대신, 매일 이카루스의 X-포럼을 탐험했다. 그의 밈과 도발적인 발언들은 그녀에게 유일한 빛이자, 현실의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였다.

이카루스의 새로운 밈이 올라오자, 세라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우리는 NPC야. 이카루스 님만이 이 시뮬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달았다.

“이카루스 님, 우리는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NPC가 아닌 진짜 인간이 되는 그날까지.”

그녀는 그의 모든 트윗에 '좋아요'를 누르고, 답글을 달고, 리트윗했다. 그녀의 현실은 점점 흐릿해져 갔다. 학교 성적은 바닥을 쳤고, 친구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부모님은 매일 그녀의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에게 이카루스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녀는 그 희망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이카루스가 언급한 'NPC'들의 무의미한 삶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카루스의 다음 트윗을 기다리며,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침잠해 들어갔다. 그곳이 그녀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림자 속의 거래**

워싱턴 D.C.의 낡은 벽돌 건물 안에 자리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아르카디아'.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권력과 돈, 그리고 욕망이 비밀스럽게 거래되는 그림자의 성소였다. 앤티크한 샹들리에의 은은한 조명 아래, 이카루스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 크로노스 상원의원을 응시했다. 크로노스는 육중한 체구와 흰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마치 로마 시대의 조각상처럼 위엄이 넘쳤다.

두 사람 앞에는 최고급 와인과 푸아그라가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음식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오직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긴장감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자네의 우주 사업, 인류의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

크로노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물론이죠, 의원님. 화성 식민지 건설은 인류의 궁극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카루스는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좋아. 연방 정부는 자네의 사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네. 아마 자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거야. 하지만….”

크로노스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잔을 내려놓으며 이카루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있지. ‘헤파이스토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곳. 그들은 우리에게 비협조적이야. 기술력을 빼앗으려는 시도도 거부했고, 우리 계획에 동참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

크로노스의 말은 암묵적이었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는 이카루스에게 헤파이스토스 코퍼레이션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그들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시장에서 완전히 몰락시키는 일이었다.

이카루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그의 멘토였던 헤파이스토스 코퍼레이션의 창업주, '프로메테우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순수하게 우주를 꿈꾸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사람을 제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카루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크로노스에게 하는 대답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향한 변명이기도 했다. 크로노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협력자일세. 인류의 미래를 위한, 숭고한 협력자.”

**망각의 강**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벽난로 속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이카루스의 고독을 강조했다. 그는 대리석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했다.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 확장된 동공, 그리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 거울 속 남자는 며칠 전 5만 명의 군중 앞에서 인류의 미래를 논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의 눈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넘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열일곱 살의 이카루스가 보였다. 그는 낡은 천체 망원경을 들고 옥상에 서 있었다. 그의 셔츠에는 잉크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종이에 끄적거린 로켓 설계도를 품에 안고, 언젠가 저 별을 향해 날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소년의 눈빛은 순수했고, 좌절이나 타협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다.

이카루스는 거울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그의 손바닥을 얼렸다. "인류의 미래"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 크로노스 의원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경쟁자를 짓밟아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과거의 순수했던 자신과 현재의 더러워진 자신이 충돌하며, 그의 내면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이게… 최선이었어. 인류를 위해서….”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때, 비서 헬레나가 작은 유리병과 주사기를 들고 들어왔다. 유리병 안에는 투명한 앰버 시럽이 담겨 있었다. 앰버는 호박(Amber)을 뜻하지만, 동시에 '케타민'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은어였다.

“앰버 시럽, 준비됐습니다.”

헬레나의 목소리는 무감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이카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사기를 받아들었다. 그는 셔츠를 걷어 팔뚝의 혈관을 드러냈다. 이미 여러 번의 주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주사기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그의 몸은 이내 따뜻한 무중력 상태에 빠지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현실의 감각이 흐릿해지고, 세상이 색채의 파동으로 변해갔다. 앰버 시럽의 환각은 그를 현실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였다. 그는 이제 펜트하우스의 초라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별을 향해 날아가는 순수한 꿈을 꾸던 소년으로 돌아갔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우주선 ‘아레스’가 빛을 뿜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우주선에 탑승했다.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우주선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중력은 그의 몸을 짓누르지 않았고, 속도의 감각은 그에게 황홀함을 선사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지구는 점점 작아지고, 푸르고 아름다운 구슬처럼 빛났다.

그는 환각 속에서 크로노스 의원과의 거래를 잊었다. 경쟁자를 파멸시켜야 한다는 압박감도 사라졌다. 오직 별을 향해 날아가는 순수한 열망만이 그를 가득 채웠다. 그는 이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짜 영웅의 서사 속으로 깊숙이 침잠해 들어갔다. 그곳이야말로, 그가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었다. 붉은 행성, 화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현실의 추악함이 닿지 않는, 오직 꿈과 희망만이 존재하는 약속의 땅이었다.

**추락과 비상**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비출 무렵, 이카루스의 환각은 잔혹한 현실 앞에 산산조각 났다. 헬레나는 그의 옆에 앉아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굵은 활자로 ‘이카루스, 정치인과 검은 거래로 경쟁사 제거 시도’라는 헤드라인이 번뜩이고 있었다. 크로노스 의원과의 비밀 회동, 그리고 헤파이스토스 코퍼레이션의 몰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어 있었다.

이카루스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난밤의 환희는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공포와 절망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팔뚝에 남아있는 주사 자국이 어제의 도피를 상기시키는 듯 쓰라렸다.

“기자회견 준비하겠습니다.” 헬레나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아니.”

이카루스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도시를 향했다. 어제까지 그를 향해 환호하던 군중은 이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회사가 만든 자율주행 전기차들은 도로 위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화성 프로젝트에 대한 댓글 창은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했다.

그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X-포럼에 접속했다. 5만 명의 군중이 아닌, 수억 명의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움직인다. 그대들은 조롱하라. 어차피 이 우주 시뮬레이션 속 NPC들의 비난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덧붙였다.

“헤파이스토스는 기술을 공유하길 거부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될 것이다.”

이 트윗은 또다시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그의 팔로워 중 일부는 여전히 그를 옹호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위선자'라 비난하며 등을 돌렸다.

그때, 그의 멘션 창에 세라의 글이 올라왔다.

“이카루스님, 거짓말이죠? 우리는 NPC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었는데….”

그녀의 글은 수많은 비난의 댓글 사이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이카루스는 그 글을 읽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답장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는 그가 지키고 싶었던 순수한 믿음마저 파괴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흔들리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핵심 인력들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헬레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화성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될 위기입니다. 이대로라면….”

하지만 이카루스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은 여전히 그에게 손짓하고 있는 듯했다.

“아니, 멈추지 않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한번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게임을 계속할 생각이었다.

“인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크로노스 같은 위선자들? 아니면 맹목적인 군중? 인류는 나를 필요로 해. 비록 내가 악마가 될지라도….”

그는 헬레나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화성 프로젝트팀 모두를 내 방으로 불러. 그리고 케타민도. 오늘 밤, 우리는 화성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을 거야.”

비록 그가 현실을 잊기 위해 케타민에 의존하고, 타협과 위선으로 얼룩진 추악한 거래를 했지만,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별을 향한 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꿈은 이제 순수함보다는 광기와 자기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이카루스라는 존재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그는 추락했지만, 다시 한번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